



그레이트 타임

우리의 모든 시간을 은혜로 채워주실 주님을 기대합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협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로마서 8:28)



가족사진: 야간에도 로고스호프를 방문한 사람들을 뒤로하고

안녕하세요. 새해 첫 달 소식으로 인사드립니다. 새해가 되면서 시간이 더욱 빠르게 감을 실감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동역자 분들의 가정과 생업 가운데 늘 주님의 은혜가 넘치기를 항상 기도드립니다. 로고스호프는 송구영신예배를 드리며 새해 첫 날을 감사와 기쁨으로 맞이하였습니다.



로고스호프를 맞이하는 이집트 현지 환영단



한국을 사랑하는 이집트 아가씨들과 현지 식당에서



매일 평균 7천여명이 넘는 방문객들이 방문한 이집트, 포트사이드

1월3일 저희는 레바논을 떠나 이집트 포트사이드에 도착하였습니다. 이집트에 먼저 준비하러 간 선발대가 기도요청을 보낼때마다 많은 이들이 우리가 오기를 기다리고 있다며 기대하는 마음으로 가게 되었는데, 아니나 다를까 저희가 정박하기도 전에 음악과 춤공연으로 저희의 입항을 축하해주고 환영해 주었습니다. 오랜만의 큰 환대식으로 이번 항구에서의 사역이 더욱 기대가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저희의 기대를 저버리지 않으시고 서점문을 열자마자 5천여명이 넘는 사람들을 보내주셨고 그 숫자를 매일매일 초과하며 계속해서 그동안의 어떠한 항구보다 많은 이들이 서점을 방문하였습니다. 주말의 어떤날은 너무 많은이들이 방문하여서 사람들을 통제하는데 어려움이 있었고 일찍 문을 닫는 상황도 생겼습니다. 이집트 사람들은 정말 외국인을 좋아하고 관심이 많으며, 친절하였습니다. 서점에가거나 길을 다닐때에 연예인이라도 된듯 늘 사진을 찍자며 다가왔고, 저희가 다가가기도 전에 먼저 다가와 말을 건넸습니다.

이집트 포트사이드는 도은혜 선교사에게 정말 잊을 수 없는 특별한 항구였습니다. 선내 행사 중 밋더월드 **Meet the world - 세계 여러나라의 문화 공연 선보이는 이벤트**의 부채춤을 통해 만난 이집트 무슬림 여대생 둘을 만났습니다.



이 두 여대생은 마침 한국어를 열심히 공부하고 있어서, 도선교사와 한국어로 대화도 나누고 따로 연락하여 밖에서 같이 시간을 보내기도하고 가족들을 만나 교제도 하였습니다. 한국에 관심이 많은 이집트 여학생들이 정말 많았고, K-POP과 드라마로 한국이 많이 알려져 그들에게 다가가 함께 교제하는 것이 어렵지 않았습니다.

도선교사는 이번 항구에서 두번의 외부 사역 기회를 가졌었는데 한번은 현지교회에 가서 어린이 프로그램과 여성들에게 짧은 나눔을 가졌었고, 나머지 한번은 선내 서점에 가서 사람들과 이야기를 나누는 사역을 하였습니다. 이집트의 모든 개신교회에는 경찰들이 보호하고 있습니다. 극 무슬림들로부터의 박해와 테러로부터 지켜져야 하기때문입니다. 이번 교회 방문으로 보게 된 것은 이들의 하나님을 향한 사랑과 순수함과 겸손함 입니다.



무슬림 가정과 함께



이집트 현지 교회 주일학교에서



배를 방문한 아이 엄마와 함께

저희는 사랑을 주고 섬기러 갔다가 오히려 돌려받고 왔습니다. 수많은 아이들이 목청껏 마음을 다해 찬양하는 모습을 통해 이집트 땅의 소망을 보았습니다. 이집트의 선교사님들, 목사님들과 성도님들을 위하여 기도부탁드립니다. 서점에서의 사역은 많은 사람들과 사진찍고 이야기하느라 몸은 힘들었지만 다양한 사람들과 이야기를 나누고 우리가 이곳에서 어떤 것을 하는지 왜 이곳에 왔는지 이 배가 무슨일을 하는지를 나눌 수 있어서 좋았습니다. 사역을 마칠 때즈음에 엄마와 딸들인 가정을 만났는데 어렸을 적 일찍이 아빠를 여의었다고 하였습니다. 그 가족이 영어를 하지 못해 이야기를 깊게 나누는데 어려움이 있었지만 번역기를 써가며 교제를 하였습니다. 딸들의 엄마가 많이 외로워 보였는데 서점에서의 교제가 조금이나마 위로가 되었기를 바라는 마음입니다. 저희의 이 간증과 나눔을 통해 이들이 조금이나마 우리를 다르게 생각하고 예수님에 대해 깊게 생각해 볼 수 있는 기회가 되길 기도해 주세요.

신사랑 선교사는 엔루트 **En-route** '문화와 종교' **Culture & Religion** 대단원 **Module 3** 하나를 잘 마쳤습니다.(지난 4개월 동안 진행) 이는 신 선교사가 기획하고 진행한 선내 메인 선교 훈련으로 선교의 타문화 이해 그리고 타종교 개관 및 세계관 이해 등을 다루는 훈련이었습니다.

[이번 문화와 종교 Module 3 정리 영상을 저희 카카오톡채널에서 보실 수 있습니다]

신선교사가 계속해서 기획하고 진행할 선내 선교사들을 위한 선교 및 신앙 훈련들을 위해 기도해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주안이의 페로 친구들, 윤변과 트레스타



이집트, 수에즈 운하를 통과하며



요르단, 아카바 항구에 도착한 로고스호프

주안이와 이안이는 이제는 완전히 학교와 배에 잘 적응하여 감사하게도 너무 잘 지내고 있습니다. 다만, 1월 31일은 주안이에게 많이 힘든날이었습니다. 페로 아일랜드 **Feroe Island: 덴마크령인 덴마크 왼쪽에 있는 작은 섬**에서 온 또래 친구들이 떠났기 때문입니다. 웃프게도 주안이는 그 친구들을 따라 페로 아일랜드에 가겠다고 가방을 싣다는 것입니다. 처음에는 장난인줄 알았는데 안된다고 하니 울고 불며 따라간다고 하여 저희의 마음이 좀 아팠습니다. 배에는 항상 사람들이 오고 가기에 친해지고 헤어짐이 사실 쉽지 않습니다. 정이 많은 주안이가 이제 점점 친구가 소중한 나이가 되어가는데 잘 극복하고 상처로 남지 않기를 기도 부탁드립니다.

1월 23일 이집트를 떠나 수에즈 운하를 통과하여 요르단 아카바 항구로 25일 도착하였습니다. 요르단은 도선교사가 2010년 9월부터 2년간 선교사역을 하던 곳이어서 저희에게 특별한 항구입니다. 같은 이슬람 국가이지만 요르단은 이집트와는 많이 분위기가 다르고 레바논과도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 국왕체제로 정치적으로 안정된 나라이기에 저희는 확연히 다른 분위기를 느낄 수 있었고 사람들의 분위기 거리의 모습 등 모든 것이 지난 두 항구 보다는 편하고 안정적인 느낌입니다.

하지만 이곳의 어려움은 사람들의 마음이 닫혀있다는 것입니다. 예의 바르고 점잖지만 다가오지 않고 깊이 대화를 하지 않으려고 합니다. 아카바가 수도에서 4시간이 떨어진 요르단 남쪽 끝에 있는 작은 도시이기에 방문객들의 숫자가 적다보니 몸은 편하지만 간증조차 나누기 힘든 분위기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보낼 만한 사람들, 만날만 한 사람들을 만나게 하시어 일하실 것들을 신뢰하고 기대합니다.



기도해주세요

1. 주께서 이집트 가운데 계속해서 많은 이들을 만나주시도록
2. 요르단에 있는 선교사들과 현지 교회들이 지치지 않고 계속해서 열심으로 주의 일을 감당할 수 있도록
3. 앞으로 갈 항구들의 사역 계획과 인도하심을 위해서

로고스호프 다음 행선지

사우디아라비아. 제다

2월 19일 ~ 2월 27일

사우디아라비아. 지잔

3월 1일 ~ 3월 6일

지부티. 지부티

3월 8일 ~ 3월 17일



QR코드 링크



카카오톡 검색: '신사람 도은혜 선교사'를 검색해주세요.